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1

▶ 82회 예고
드디어 아쇼까왕은 왕비 아상디밋따와 띠쉬아락시따, 출가한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부라흐마를 데리고 순례를 떠난다. 우빠굽따 장로는 싯다르타 태자가 까삘라성을 떠난 이후 고행주의자 박가바와 알랄라 깔라마를 만난 인연을 설법한다.



아쇼까왕, 우빠굽따와 재회

우기에 접어든 빠딸리뿌뜨라성도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비가 퍼붓기 시작하자 내성과 외성 안팎의 거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졌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아쇼까라마 회랑에 서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이티아(塔院)로 기도하러 가야 하는데 장대비가 발걸음을 막았다. 회랑을 나서는 순간 황색가사가 굵은 빗줄기에 바로 젖어버릴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수행자들의 작은 숙소인 꾸띠 너머에서 한 사문이 장대비를 맞으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에게는 낯선 사문이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사문은 아닌 듯했다. 낯선 사문이 장대비를 피해서 회랑으로 들어섰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가 다가가서 말했다.

"나는 목갈리뿟다띳사라고 하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베살리를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소승은 우빠굽따라고 하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는 깜짝 놀랐다.

"샤나까바시 아라한의 제자 우빠굽따 장로시란 말입니까?"

목갈리뿟다띳사는 우빠굽따 장로가 아쇼까라마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미투라 지역의 사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있는 비구가 우빠굽따였는데,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장로가 눈앞에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로시여, 우기에도 만행을 하십니까?"

"저는 고따마 붓다께서 다녀가셨던 도시와 마을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저는 붓다께서 그러하셨듯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순례가 곧 수행이지요."

"오, 아난다 존자를 존숭해온 장로가 분명하군요."

"스승님 가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기에 순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강물에 휩쓸려갈 수 있으니 아쇼까라마에서 우기를 보내고 떠나시오."

"저는 우기와 건기, 혹서기를 가리지 않고 순례해 왔습니다. 순례하면서 붓다와 아난다 존자가 남긴 그림자를 찾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껴 왔지요."

"장로께서 느끼는 행복을 아쇼까 대왕님께 나눠줄 수는 없겠소? 대왕님께서는 담마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선언했다오."

목갈리뿟다띳사가 아쇼까왕을 들먹이자 우빠굽따는 다소 놀랐다.

"대왕님 소식을 어떤 사문에게 들었습니다만."

"대왕님을 아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뵌 적이 있지요. 십수 년 전입니다. 꼬삼비에서 뵀지요. 대왕님께서는 옛 아반띠국 부왕이 되시어 웃자인으로 가시는 길이었고, 저는 붓다께서 두 해 머무셨던 꼬삼비에 있었습니다."

"아, 잘 되었소. 대왕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대왕님을 뵐 수 있도록 주선하겠소."

우빠굽따는 거절하지 않았다. 문득, 당시 18세였던 아쇼까 부왕의 풋풋하고 당당한 모습이 떠올랐다. 반얀나무 이파리들이 달빛에 반짝이는 밤이었다. 아쇼까 부왕이 꼬삼비의 꾸꾸따라마 터로 찾아와 야무나강 안개가 어깨를 적실 때까지 우빠굽따는 법문을 해주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고백했다.

"언젠가 우빠굽따께서 아쇼까라마를 맡아주신다면 그때까지만 있겠다고 말씀드렸지요."

"하하하. 저는 붓다와 아난다 존자가 끝없이 길을 걸으셨듯이 숨이 다할 때까지 순례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쇼까라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는 우빠굽따의 강한 순례의지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아쇼까라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빗발이 가늘고 성글어졌다. 우빠굽따는 목갈리뿌다띳사를 따라서 비하르로 갔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방 하나를 우빠굽따에게 내어주고는 황색가사 한 벌을 빌려주었다.

비하르는 사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승원이었다. 장로급이 되어야만 움막 같은 꾸띠를 한 채씩 받아 홀로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문이 꾸띠를 차지하는 예는 드물 터였다. 대중들 대부분은 비하르로 가서 합숙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라마의 규모를 보고 새삼 경외감이 들었다. 차이티아와 비하르, 꾸띠가 수백 동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자신이 순례해 오면서 보았던 사원의 규모 가운데 아쇼까라마가 가장 컸다. 한 사문이 오더니 우빠굽따 발에 엎드리며 입을 맞추었다.

"장로시여, 방금 목갈리뿟다띳사 스승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투라에서 오신 장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점이 있다면 소승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지요.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마힌다 비구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쇼까라마는 대왕님께서 조성하신 사원입니까?"

"예, 그러나 원래 이곳에는 꾸꾸따라마가 있었습니다. 꾸꾸따라마를 개보수한 사원이 아쇼까라마입니다."

"꾸꾸따라마라고요?"

"장로시여, 왜 놀라십니까?"

"제가 꼬삼비에서 대왕님을 처음 뵀던 곳도 꾸꾸따라마 터였습니다."

"어째서 꾸꾸따라마가 꼬삼비와 빠딸리뿌뜨라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꾸꾸따 부호상인이 꼬삼비와 빠딸리뿌뜨라를 오가며 장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따마 붓다 시절에는 부호상인을 장자(長者)라고 불렀는데, 꾸꾸따라는 장자가 거금을 보시하여 지은 사원이 꾸꾸따라마였을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꾸꾸따 장자는 강가강을 이용해 각 지방의 특산물을 상선에 싣고 운송하며 장사를 크게 했던 부호상인이었음이 틀림없었다. 마힌다는 끝내 아쇼까왕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빠굽따 장로에게 밝히지 않았다. 세속의 인연을 끊고 출가했기 때문에 굳이 우빠굽따에게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목갈리뿟다띳사가 왕궁에 갔다가 돌아오자 마힌다는 슬그머니 물러났다.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장로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오."

"벌써 십수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하고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어서 왕궁으로 들어가시지요. 대왕님께서 장로를 기다리십니다."

두 장로는 왕궁으로 걸어갔다. 내리는 둥 마는 둥 하는 미세한 빗방울이 두 장로의 얼굴에 스쳤다. 두 장로가 왕궁에 들어섰을 때는 가는 빗방울에 젖은 황색 가사의 빛깔이 더욱 선명했다. 왕궁 접견실의 하인이 나타나 큰 대야에 발 씻는 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장로는 손과 발을 씻고 하인이 접견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다. 접견실의 대왕 전용의자에 앉아 있던 아쇼까왕이 일어나 우빠굽따를 맞이했다.



"장로시여, 얼마 만이오? 반갑소."

"대왕님이시여, 다시 뵙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우빠굽따는 허리를 크게 숙여 합장했다. 그러자 아쇼까왕이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장로시여, 앉으시오."

"대왕님께서 목갈리뿟다띳사 장로를 자주 불러 법문을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왕님이시여, 참으로 현명하십니다."

"우빠굽따 장로는 모르시겠지만 나는 이미 '승가의 보호자'에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 왕이오."

아쇼까왕이 하는 말을 우빠굽따가 이해하지 못하자 목갈리뿟다띳사가 설명했다. 아쇼까왕은 아쇼까라마를 지어 날마다 수행자 6만여 명에게 공양을 올려 '승가의 보호자'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 마힌다와 딸 상가밋따는 물론이고 사위 악기브라흐마와 외손자 수마나를 출가시키어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그제야 우빠굽따가 감격하여 또 다시 앉은 채로 합장했다.

"내가 부왕이 되어 웃자인을 내려갈 때 장로를 초대했지요. 장로께서는 아침공양을 하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장로의 기도를 이해하지 못했소."

"대왕님이시여, 제가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이었다. 우빠굽따는 꼬삼비에서 아쇼까왕에게 아침공양을 받은 것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그 이상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그때 우빠굽따가 한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억했다. 우빠굽따는 붓다의 위신력으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적을 평화롭게 제압하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했던 것이다.

"고시따라마에서였소. 아침공양을 하기 전에 장로는 나를 위해 기도했소. 붓다의 가피를 받아 무기로 적을 살상하지 않고도 제압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소."

"아, 그랬습니까?"

"장로의 기도처럼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군주가 위대한 대왕이 아니겠소? 그때 장로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무기는 따로 있다고 했소."

그제야 우빠굽따는 그때를 생각해 냈다. 아쇼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여 아쇼까를 의아하게 했던 것이다.

"대왕님이시여, 생각이 납니다. '붓다의 가르침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형상 없는 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그때 나는 장로를 비웃었던 것 같소. 붓다의 가르침도 칼보다 위대할 수 없다고 말이오. 마우리아국을 세운 것은 할아버지 짠드라굽따왕의 칼과 아버지 빈두사라왕의 칼이었지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말이오."

"지금도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으십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던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우빠굽따 장로시여, 대왕님은 그때와 다르십니다. 칼링가국을 정벌하시고 난 뒤 다야강에 칼을 버리셨습니다. 앞으로는 칼이 아닌 담마로 세상을 정복하는 전륜성왕이 되시겠다고 선언하셨다오."

아쇼까왕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우빠굽따 장로의 말씀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같소. 나는 장로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소.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알려주시오. 나는 '믿음의 상속자'에서 '담마의 실천자'가 되고 싶소."

우빠굽따는 자신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아쇼까왕에게 감동했다. '담마의 실천자'가 되겠다고 말한 아쇼까왕의 진심을 접하고는 기쁨이 솟구쳤다. 붓다가 머물렀던 도시나 마을로 가서 눈물을 흘리곤 했는데, 그것에 못지않은 감격으로 마음이 격동되었다.

"대왕님이시여, 사문은 평생 동안 붓다께서 법을 설하시고 머무르셨던 곳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접하고 실천하겠다는 저만의 수행법입니다."

"나도 장로의 수행법을 따라하고 싶소. 다만 나는 백성을 다스려야 하니 붓다의 성지라고 하더라도 매년 한두 군데밖에 갈 수 없소, 어디서부터 순례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소?"

"소승의 생각으로는 붓다께서 태어나신 룸비니 동산부터 찾아가 참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소. 나는 룸비니 동산을 참배할 것이오."

아쇼까왕은 우빠굽따를 만나고 나서는 붓다가 법을 설했던 곳을 순례하기로 했다. 다만 우기가 지나가야 했다. 아쇼까왕을 호위하는 큰 규모의 일행이 이동할 것이므로 우기는 피해야 했다. 강물이 범람하고 천둥과 벼락이 치는 우기는 위험했다. 우빠굽따는 아쇼까왕을 안내하기 위해 그때까지 아쇼까라마에 남기로 했다.〈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사
주지 소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